

VI. 강릉단오제의 특성

1. 강릉단오제와 풍토(風土)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강릉단오제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도 있듯이 5월 초 하룻날에 대관령신을 맞이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그 역사가 오래되며, 또한 무당이 단오굿을 주재하며 춤과 사설이 있고 장단이 있으므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강릉단오제의 학술적 가치이다. 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는 당대에 모든 것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후대에도 연구를 지속하여 전통문화를 규명할 수 있도록 전승보존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연구는 범일국사, 김유신장군 등의 설화를 통한 신격(神格)에 관한 연구와 유교적 제례와 굿을 통한 단오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집약된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연구 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 어느 설이 타당하다고는 언급하기에 아직 시기상조이다. 여기에서는 강릉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풍토론적 입장에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한해를 주기로 행하는 세시풍속이 그렇듯 역법(曆法)의 순환에 따라 삼짇날, 단오날, 백중날 등과 같이 일정한 날에 의례와 행사가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특히 민간에서는 자연현상이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자연력(自然歷)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릉단오제의 각종 행사를 단오와 직접 결부지어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지방에 따라 단오 행사도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 강릉일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주민이 춘제(春祭)나 하제(夏祭)가 역일(曆日)의 보급과 함께 단오제를 계기로 정착되어 오늘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목적이 풍요, 풍농 그리고 산악신앙까지 결부되어 있음은 산과 바다를 주변 환경으로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단오제가 재액을 방지하며, 특히 한재(旱災)로부터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강릉지방의 농경에서도 수전재배(水田栽培)가 보급된 이후일 것이다.

강릉단오제에서 대관령산신을 맞이하여 강릉으로 모셔와 남대천변에서 단오제를 하여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는 것은 동해안은 물론 우리나라 어촌의 일반적 형태인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대관령산신은 신체(神體)로서 대관령의 신목(神木)을 베어와 강릉으로 모셔온다. 길은 대관령과 동해를 이어주는 남대천 줄기와 일치하여 강변에서 굿찬이 벌어진다. 강은 배를 통한 물자의 운송통로이며, 인간이 왕래하는 교통로일 뿐만 아니라 종교상 초자연적 초인간적 존재인 신들의 통로로서 인간 문화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강은 아래로 내려오면 바다와 통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산상(山上)을 통하여 무한의 하늘로 통할 수 있다. 따라서 산신과 해신은 강을 매개로 교류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기에 천신(川神)은 산신과 해신 또는 수신(水神)의 성격을 띄는 것이다.

남대천에서 단오굿이 벌어지고 단오장, 즉 난장이 서게 된다. 강변에서 시장을 열도록 하는 것은 기우제에 관한 옛 문헌 기록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변에 시장이 서는 것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으나, 이곳에서 단오굿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을 모시고 굿판을 벌이고 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시장이 거의 사라졌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연말과 추석에서는 시장이 있다. 일반 상점이나 백화점에 추석과 연말 대매출이라는 형태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전통적인 조령

(祖靈)신앙과 관계가 있어 연2회 대표적인 연중행사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상제사를 지내는 기회와 옛부터 상품거래의 결재를 하는 민속관행으로서 흥미를 주고 있다. 강릉단오제에 단오굿과 함께 단오장이 서는 것은 산에서 채취한 물건과 농산물 그리고 해산물의 단순한 교역이라기보다 민간신앙에 기저를 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남대천이라는 해신과 산신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설정과 이곳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2. 제의의 이중성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는 유교와 무속이 습합된 제의이다. 언제부터인지 상고(詳考)할 수 없으나 지방수령(守令)에 의해서 제의(祭儀)가 집행되었고 따라서 홀기(笏記)가 있어 의순(儀順)이 정해져 있다.

강릉은 울곡이이 선생이 탄생한 곳이다. 유교가 왕성했고 또한 강릉의 향교(鄕校)는 그 규모가 커서 전국에서 이름 있는 명향교(名鄕校)로 알려져 있다. 거유(巨儒)의 출생지답게 큰 향교가 있어 유교의 왕성한 고장이기 때문에 향토신사(鄕土神祀)에도 유교식 홀기가 사용되고 지방수령은 그 홀기에 의해서 제의(제의)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강릉단오제가 향토신사임에도 관원이 참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향토신사의 원래 기능은 백성들의 제화초복(除禍招福)으로 건강유지, 질병퇴치, 농곡풍양(農穀豐穰), 가축번식(家畜繁殖) 등으로 평안하게 살기를 기원한 것이니 바로 관원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했다.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관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이 잘 살기를 기원하는 향토신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도(先導)할 필요가 있었으니 강릉단오제에 관원이 앞장서서 제의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 강릉은 관동지방에서 제일가는 거읍(巨邑)이었다. 한때 예(濊)의 거읍으로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지금도 행정, 교통, 경제, 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영동에서 중앙으로 왕래하려면 대관령(大關嶺)을 넘어야 했다. 해발 900m에 이르는 고산준령(高山峻嶺)을 넘어야 했으니 험한 산로(山路)에 맹수도 있고 산적(山賊)도 있어 매우 불안했다. 현지 전설을 조사해보면 대관령을 넘어려면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은 재난(災難)을 만날 수가 있으니 고개 양쪽에 있는 주막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려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고개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만큼 대관령 고개는 행로(行路)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은 관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스스로 산로(山路)의 안전을 바랬고 백성들의 안전도 보호해야 했으니 행로 안전을 비는 대관령 산신(山神)과 성황(城隍)을 제사하는 단오제에 적극 참여해야 했다. 작은 일이면 민간에 맡겨 두어도 되었으나 단오제만은 백성들에게만 전담시키지 않고 지방수령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교에서는 흑세무민(惑世誣民)을 강조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에게 거짓말로 유혹한다고 해서 무력들을 때때로 크게 꾸짖고 축출(逐出)하면서 원래 무의(巫儀)로 진행되던 단오제를 관원이 나가 몸소 제관으로 집행한 것은 단오제의 타당성이 완고한 관원들에게도 이해되고, 그 타당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강릉단오제의 제의에는 유교식 제의가 채택되고 참여하게 되었다.

근엄했던 관장(官長)들도 관복(官服)을 입고 제장(祭場)에 나와 남녀성황신(男女城隍神)에게 헌주(獻酒)하고 배례(拜禮)한 것이다. 또 단오제신(端午祭神)을 서낭이라 기록하지 않고 꼭 성황

(城隍)이라 기록한 것도 유생(儒生)의 참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릉단오제는 유교식 제례가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성을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무속이 습합된 이중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교식 제례는 제관들의 복식과 홀기, 축문을 갖추고, 헌관 및 집사들이 주재하는 산신제, 성황제, 영신제, 봉안제, 조전제, 송신제에서 잘 드러난다. 오늘날에도 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이 제관이 되어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등 관이 직접 참여한다. 여기에 단오제의 핵심이라 할 단오굿과 같은 무속적인 제의가 첨가됨으로서 축제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강릉단오제는 전통적 무속신앙과 유교적 제례가 함께 치러지는 종합성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

3. 관노가면극의 특성

단오제에 행하는 강릉관노가면극의 연희 장소는 대성황사를 비롯하여 제관청, 여성황당 등 여러 곳에서 탈놀이를 했다고 전하지만 현재는 남대천에서 연희되고 있다. 그 어느 곳도 단오제가 행해지는 곳으로 단오제와 관노가면극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단오제에 행하는 신성제의 극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등장인물은 시시딱딱이, 소매각시, 양반, 장자마리로 구성되어 있다. 양반은 소매각시에게 사랑을 구하고 소매각시는 이에 뜻이 맞아 사랑을 나누는데 어찌면 이것은 인간의 속(俗)의 세계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시시딱딱이는 무서운 형상의 탈을 쓰고 작을 칼을 들고 나와 양반과 소매각시의 사랑을 질투하고 훼방하는데 이에 희롱당한 소매각시는 자살소동을 벌이게 되나 결국 살아 나게 된다. 또한 양반과 소매각시는 다시 화해를 하게 되는데 관객 모두가 어울려 춤을 춘다. 이러한 연희 내용 중에 주목되는 것은 장자마리와 시시딱딱이의 옷 색깔은 회청색으로 땅과 바다를 연상시키게 하고 곡식의 즐기인 나리와 해산물을 달고 나와 모의적인 성행위를 보여 주기도 하는데 풍요와 풍어를 가져다주는 다른 세계에서 등장한 인물이라고 전한다. 인간세계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방문신으로서의 장자마리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시시딱딱이와의 대립관계에서 인간관계의 질서를 위한 상호 교류 속에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에 장자마리의 춤은 신앙적인 행위로 벽사춤이 될 것이며 시시딱딱이의 춤은 본격적인 검무로서 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릉관노가면극의 특징으로 학자들 을 무언극인 점과 시시딱딱이의 재앙을 쫓고 장자마리를 통해 풍요를 기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무언극의 의미에 대해 선금 후과제가 이기도 하다.